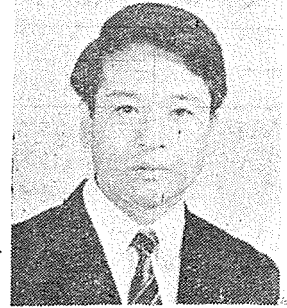


苦難克服 오늘의 榮光차지



技術提携承認으로 中斷했다 研究再開

<KIST유기합성연구실장>

蔡永福 박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黑白필름 生産에 成功한 KIST 蔡永福박사 蔡박사가 오늘의 榮光을 차지하기까지는 솔한 哀歡이 뒤따랐다고 한다. 필름製作에 중요한 油劑는 이미 71년에 開發했었습니다. 새한상사주식회사로부터 研究위탁을 받고 얼마 안되어서 油劑를 開發했으나 研究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

某회사에서 日本商社와 技術提携를 추진했었는데 政府에서 이를 承認해줬어요. 이때의 괴로웠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후 黑白필름연구는 필요없게 돼서 X-RAY필름 研究만을 했어요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日本商社와의 技術提携문제는 호지부지 돼서 取消되고 말았다. 다시 필름國産化의 研究를 繼續하게된 蔡박사팀은 가슴 뿌듯한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 것. 하지만 이 기쁨도 실로 순간적이었다.

어느 정도의 우수한 제품을 얼마나 빨리 開發하느냐하는 문제로 研究팀 全員이 눈코뜰새없는 나날을 보내게 됐죠.

그동안의 고충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슬회한다.

더욱이 캄캄한 暗室에서 많은 化學藥品을 다루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컸다는 것.

「연구원이 실명하는 불행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가슴아픈일로 暗室內에서의 作業이었기 때문에 心的인 괴로움도 컸으나 肉體的인 고통도 많았다는 것이다. 「의외로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榮光의 뒤안길에는 心的고통과 肉體的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예부터 開拓者는 외롭고 괴로움을 韃耐하는 굳은 意志를 가져야 했던 것일까.

그래서 하고 싶은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研究開發할 수 있는 分野는 外國과 技術提携를 할필요없어요, 또 研究開發品目은 充分한 保護를 해줘야 합니다」

· 研究 초기에 技術提携說로 놀란 가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表情이다.